

明·淸時代의 新安(徽州)醫學-儒·商·醫 三位一體의 文化構造

¹이민호, ¹안상우

¹한국한의학연구

Huizhou Medicine (Xin'an medicine) in the Ming-Ching Dynasty -The Confucian-Merchants-Doctors triad(triarchy) in the culture & structure.

¹Minho-Lee, ¹Sangwoo-Ahn

¹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In this thesis, the emphasis is laid especially on the culture & structure of Huizhou Province, China as the prime mover of the specifically-regional Huizhou Xin'an medicine.

Huizhou was the home town & stronghold of Neo-confucian masters Cheng-Zhu (Cheng brothers and Zhu-hsi)".

The tradition of the region as "The arts province" resulted in the flourishing trend of nurturing prominent Confucian-doctors.

The remarkable all round activities of Huizhou Merchants (新安商人 Xin'anshāngrén), as the reigning power merchant at the period were the second mover of the Zeitgeist.

Their nation-wide network all over China made it possible to gain valuable information and access to news including the field of medicine in time.

Some merchants actually have "abandoned their own jobs to become doctors of medicine".

This Confucian-Merchant culture was one of intrinsic characteristics of Huizhou region, inducing "Pragmatic Scholarship".

With the enlargement of the population of Confucian-turned doctors and improvement of the societal status of doctors, the resultant occupational triad of local Confucian government officials, local Xin'anshāngrén merchants, and local doctors was established after the Middle-Ming Dynasty.

Ultimately, the two prime movers of the concomitant development of medicine in the Province Huizhou in this study are concluded to be the synergy effects of the Neo-Confucian tradition and economic power of the prevalent Huizhou Merchants (Xin'anshāngrén).

Key Words : Huizhou Medicine

머리말

'新安醫學'은 歷代 新安(徽州) 지역에서 출현한 醫家·醫籍을 가리키는 것으로 중국의 대표적인 지역의학이라 할 수 있다.¹⁾ 신안의학에 대한 연구는 민국시기 『徽州日報』에서 『徽州醫藥半月刊』을 펴내면서 시작되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1978년 흡현위생국의 지원을 받아 신안 지역의 의학을 연구하면서 정식으로 '신안의학'의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신안의학에 대한 종래의 연구 성과를 분류하면 ① 신안의학에 대한 개괄적 연구²⁾, ② 신안의학의 성장과 문화·경제 관계를 둘러싼 연구³⁾, ③ 정주리학과 신안의학의 발전 관계에 관한 연구⁴⁾, ④ 신안의학의 국제적 교류에 관한 연구⁵⁾,

접수 ▶ 2009년 12월 2일 수정 ▶ 2009년 12월 10일 채택 ▶ 2009년 12월 18일
교신저자 ▶ 안상우, 대전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로 483 한국한의학연구원.
Tel: 042-868-9442 E-mai: answer@kiom.re.kr

1) 彭化銀, 「醫家群體-“新安醫學”淺探」,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3, 1996, p.9.
2) 王樂陶 主編, 『新安醫籍考』,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99; 彭化銀, 「醫家群體-“新安醫學”淺探」,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3, 1996.
3) 李艷, 李梢, 「徽商與新安醫學的文化成因初探」, 『中醫教育』 15, 1996; 項長生, 項鴻, 「徽州的文化經濟與“新安醫學”」, 『中華醫史雜誌』 28-4, 1998.
4) 黃熙, 黃孝周, 「程朱理學與新安醫學之探討」, 『安徽中醫學院學

⑤ 명·청시대 휘주인의 양주에서의 醫事活動과 그 영향⁶⁾,
 ⑥ 명·청시대 新安藥店 및 그 의약학 역할,⁷⁾ ⑦ 신안의학
 의 번성과 휘주 종족제와의 관계⁸⁾, ⑧ 신안의학의 학파에
 관한 연구,⁹⁾ ⑨ 신안 지역 출신 중요 의학인물(예를 들면
 汪機¹⁰⁾, 孫一奎¹¹⁾ 등)과 그들의 학설에 관한 연구, ⑩ 신안
 의학의 무형문화유산 특징¹²⁾, ⑪ 신안의학의 유학전통과 유
 의에 관한 연구¹³⁾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신안의학은 북송시기에 형성되어 전파되다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명 성화년간 이후이다.¹⁴⁾ 『新安醫籍
 考』에 의하면 사료에 기재된 송원 이래 신안 지역에서 활
 동한 의가는 500여명인데, 이 중 405 의가가 835종의 의적
 을 남겼다고 하며, 이를 다시 분류하면 醫經類 107종, 傷寒
 類 70종, 診法類 40종, 本草類 54종, 鍼灸類 22종, 內科類
 210종, 外科類 15종, 產婦人科類 24종, 소아과류 84종, 五官
 科類 30종, 醫案醫話類 77종, 養生類 15종, 叢書類 77종 등
 이라고 한다.¹⁵⁾

본고는 이처럼 휘주 지역에서 명 중기 이래 청말까지의
 한정된 시기에 의학이 크게 발달하여 중국의 대표적인 지
 역의학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필자
 는 특히 이 지역이 ‘東南鄒魯’라 불릴 정도로 유학의 전
 통이 강한데다 명 중기 이후 중국 경제계를 이끌어나가는 대
 표적인 상인집단인 휘주상인의 발원지라는 점에 착안하여
 의학의 성장에 유학과 상업이 끼친 영향에 주목하고자 한
 다.

1. 徽州의 人文·地理環境과 新安醫學

徽州는 고대 越文化 지역에 위치하여 吳·楚 문화를 흡수
 하고, 후에는 중원문화를 받아들여 徽州 특유의 문화를 형
 성하였다.¹⁶⁾ 이 지역은 黃山 南麓에 위치하여 산천이 수려
 하고, 남송 이래 상업과 경제가 발달하고, 문화 교육이 흥
 성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많은 성과가 이루어져, ‘東南鄒
 魯’·‘文獻之邦’·‘無徽不成鎮’으로 불리기도 하였
 다.¹⁷⁾

安徽省 남부에 위치한 徽州는 浙江省 및 江西省과 접경하
 고 있는 지방으로 明清時代의 徽州府를 가리키는 지역명칭
 이다. 이 일대는 西晉 시기에 新安郡이 설치되었는데, 기문
 현 서쪽에 있는 신안산에서 유래했다.¹⁸⁾ 명·청시대에는 歙
 縣·休寧縣·黟縣·祁門縣·績溪縣·婺源縣의 6개 縣이 徽
 州府 관할 아래에 있었다. 이 중 婺源縣은 현재 江西省 관

할이며, 績溪縣은 安徽省 宣城地區에 속해 있다. 다만 歙
 縣·休寧縣·黟縣·祁門縣의 4개 현이 안휘성 徽州地區의

報』23-4, 2004.

- 5) 王旭光, 「傳入朝鮮與韓國的新安醫籍」, 『安徽中醫學院學報』23-6, 2004; 章麗華, 王旭光, 「新安醫籍在日本的流傳」, 『醫古文知識』2000-2.
- 6) 張玉才, 「明清時期徽人在揚州的醫事活動及影響」,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6-9, 2000.
- 7) 童光東, 劉惠玲, 「明清時期新安藥店及其醫藥學作用」, 『中華醫史雜誌』25-1, 1995.
- 8) 童光東, 「論新安醫家家族鏈是新安醫學發展的重要形式」, 『安徽中醫學院學報』9-2, 1990; 許霞, 張玉才, 「試述徽州宗族在新安醫學普及與傳播中的作用」, 『中醫藥導報』13-7, 2007.
- 9) 胡濱, 「中醫學術流派散論」, 『中醫文獻雜誌』2000-4; 汪滬雙, 牛淑平, 「試述新安醫學的學派與流派」, 『中醫文獻雜誌』2000年4期; 牛淑平, 汪滬雙, 「中醫學史上的新安醫學流派」, 『黃山高等專科學校學報』2-4, 2000; 項長生, 汪幼一, 「固本培元派的形成和發展」, 『中華醫史雜誌』31-4, 2001.
- 10) 顧植山, 「汪機學術思想及臨床思維探析」, 『中醫文獻雜誌』2001年2期; 徐偉, 「新安醫家汪機學術思想淺析-讀『石山醫案』有感」, 『江蘇中醫藥』40-3, 2008; 章麗華, 「汪機著述活動新考」, 『時珍國醫國藥』12-9, 2001; 王旭光, 章麗華, 「汪機著述考」, 『中華醫史雜誌』29-4, 1999; 傅佑寶, 張秀梅, 「汪機運用人參·黃芪治療腹痛的學術初探」, 『河北中醫』22-8, 2000; 傅佑寶, 邢艷艷, 「汪機扶危救急的學術特色」, 『中國中醫急症』9-3, 2000; 徐燾, 管延壽, 「汪機熱病治驗賞析」, 『安徽中醫臨床雜誌』6-4, 1994; 張玉才, 趙軍, 「汪機『傷寒選錄』初探」, 『中醫文獻雜誌』2004年2期; 汪滬雙, 張玉才, 「『傷寒選錄』淺析」, 『安徽中醫學院學報』23-4, 2004; 萬四妹, 許霞, 「汪機『傷寒選錄』對溫病學的貢獻」, 『安徽中醫學院學報』23-3, 2004; 閻廷祿, 「試論汪機的鍼灸學術特點」, 『中國鍼灸』1994年增刊; 黃學勇, 高忻洙, 「汪機鍼灸學思想評述」, 『中醫文獻雜誌』1996年2期; 李禹瑤, 林勳, 「論汪機『鍼灸問對』的特點」, 『中醫藥研究』1995-1; 張建華, 「汪機『外科理例』傷科學術思想評析」, 『安徽中醫學院學報』13-4, 1994.
- 11) 강현호·윤장열, 「孫一奎의 生涯와 學術思想에 관한 研究」,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7-2, 1999; 김용주·백유상·정창현, 「孫一奎의 火熱病機學說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회지』20-2, 2007; 孟繁潔, 「孫一奎之生命本源說」, 『天津中醫藥』21-4, 2004; 余曉琪, 黃曙光, 「新安醫家對“三焦”的爭鳴」, 『安徽中醫學院學報』17-5, 1998; 何任, 「『赤水玄珠』述評」, 『浙江中醫學院學報』26-2, 2002; 周德生, 「孫一奎命門學說新探」, 『湖南中醫學院學報』15-4, 1995; 王曉鶴, 「孫一奎的命門三焦說及其臨床意義」, 『山西中醫學院學報』3-2, 2002; 萬四妹, 張玉才, 「淺析『孫文垣醫案』“有發明”案例」, 『中醫文獻雜誌』2008年3期; 鄒杰, 趙會茹, 「孫一奎臨證治腎用藥分析」, 『中醫研究』2005-4; 鄒杰, 趙會茹, 「孫一奎『赤水玄珠』補腎觀淺析」, 『河南中醫學院學報』21, 2006.
- 12) 王鍵, 牛淑平, 「新安醫學的非物質文化遺產特徵」, 『中醫藥文化』2007-5.
- 13) 張玉才, 徐謙德, 「新安醫學的儒學傳統」, 『上海中醫藥雜誌』1998-7; 方利山, 「新安儒醫濟世救民舉隅」,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10-3, 2004.
- 14) 彭化銀, 「醫家群體-“新安醫學”淺探」,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2-3, 1996, pp.9-10.
- 15) 王樂陶 主編, 『新安醫籍考』,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99, p.5.
- 16) 項長生, 項鴻, 「徽州的文化經濟與“新安醫學”」, 『中華醫史雜誌』28-4, 1998, p.234.
- 17) 張玉才, 「明清時期徽人在揚州的醫事活動及影響」,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6-9, 2000, p.62.
- 18) 王樂陶 主編, 『新安醫籍考』,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99, p.5.

관할 아래 있었으나 徽州地區가 1988년 黃山市로 개칭됨으로써 ‘徽州’라는 지명은 역사지리상의 지명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徽州’란 일반적으로 北宋 宣和3年(1121)부터 中華民國時代까지의 徽州를 지칭하나 좀 더 좁혀 말한다면 明初부터 清末까지 1府6縣의 徽州를 가리킨다.¹⁹⁾



역사적으로 휘주분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歙東·婺源에는 본래 方·汪의 2성이 있었으나,²⁰⁾ 고·중세 시기 중원지역에서 전란이 발생하여 대규모의 인구이동이 이루어지면서 문화가 유입되었는데, 漢末, 西晉, 南北朝부터 唐·宋에 이르는 기간의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²¹⁾ 휘주는 외부와의 교통이 불편하고 병란이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중원에서 전란이 발생할 때 명문세족이 피난하여 왔던 것이다.²²⁾ 그들은 남하하면서 선진적인 중원 문화와 생산기술을 가지고 와서 당시의 토착문화와 상호 결합하여 신안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경제적 발전을 주도하였다. 宋代 ‘醫博’으로 불렸던 흡현 產婦人科의 명가 黃孝通의 집안은 중원지역으로부터 남천한 이래 대대로 그 명성을 이어 내려오고 있다.²³⁾ 『同壽錄』²⁴⁾의 저자로 유명한 청대의 신안 명의인 項天瑞 집안의 경우 唐末·五代에 중원지역으로부터 南遷하여 桂溪지역에 이르러 세인들로부터 ‘新安旺

族’이라 칭해졌다.²⁵⁾ 중원의 다양한 지역에서 이주해온 이들은 중원지역의 여러 가지 유형의 문화를 고스란히 휘주 지역에 이식함으로써 이 지역의 문화적 환경이 풍부해졌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문화적 전통은 신안의 각종 의학유파를 형성하는 인문기초가 되었다.

2. 儒敎文化의 興盛과 儒醫의 배출

1) ‘東南鄒魯’

휘주는 ‘東南鄒魯’, ‘文化之鄉’, ‘禮義之邦’으로 불리는데, 그것은 宋代 性理學의 대가들인 二程과 朱熹가 이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程朱理學의 기초를 다진 程顥·程頤는 洛陽에서 출생하였지만, 그들 선조의 고향은 휘주 흡현 篁墩(黃墩)이라고 할 수 있다.²⁶⁾ 朱熹도 복건 尤溪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모친이 歙縣 縣城 사람이고, 주희의 부친 朱松의 선조는 歙縣 篁墩에 살다가 후에 婺源으로 이사하였다고 한다. 주희는 자신의 가계를 언급할 때 “世居歙州²⁷⁾歙縣黃墩”이라 하였고, 자칭 ‘新安朱熹’라 하였다.²⁸⁾ 이와 관련하여 雍正重刻『程朱闕里志』에는 “이정과 주자 모두 그 선조가 歙縣 黃墩에서 출생하였기에 程朱闕里라 칭한다.”²⁹⁾고 하였다.

二程과 朱熹로 대표되는 당대 최고의 大儒를 배출한 휘주에서는 주희 이래 文風이 창성하고 교육도 발달하였다. 그 결과 청 강희년간에 이르러서는 휘주 6현에 社學이 562곳

19) 박원호, 「徽州文書와 徽州學研究」, 『사총』 54, 2001, p.23.
 20) 「弘治徽州府志」, “山川形勝”(項長生, 項鴻, 「徽州的文化經濟與“新安醫學”」, 『中華醫史雜誌』 28-4, 1998, p.235).
 21) 李艷, 李梢, 「徽商與新安醫學的文化成因初探」, 『中醫教育』 15, 1996, p.43.
 22) 牛淑平, 汪滄雙, 「中醫學史上的新安醫學流波」, 『黃山高等專科學校學報』 2-4, 2000, p.58.
 23) 項長生, 項鴻, 「徽州的文化經濟與“新安醫學”」, 『中華醫史雜誌』 28-4, 1998, p.235.
 24) 이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項天瑞 양생법의 내용 및 주요 학술 사상에 대해서는 王新智, 「新安醫籍『同壽錄』養生法淺析」,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10-6, 2004, 참조.
 25) 項長生, 項鴻, 「徽州的文化經濟與“新安醫學”」, 『中華醫史雜誌』 28-4, 1998, p.235.
 26) 「祁門善和程氏譜」에 二程에 관해 “胄出中山, 中山之胄出自新安之黃墩, 實忠壯公之裔”라 하였다. 忠壯公은 南梁 篁墩人 程靈洗로 ‘平侯景叛亂’에 功이 있어 梁 元帝로부터 新安太守에 임명되었고, 죽은 후에는 ‘忠壯’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27) 徽州의 명칭은 晉代에 新安郡이 설치된 이래 隋代에 歙州라 칭하였다가 宋宣和3년에 徽州로 改名하였다.
 28) 黃熙, 黃孝周, 「程朱理學與新安醫學之探討」, 『安徽中醫學院學報』 23-4, 2004, p.8.
 29) 雍正重刻『程朱闕里志』: “二程與朱子所由出, 其先世皆由歙黃墩徙, 故稱程朱闕里.”

(『徽州府志』), 송·원·명·청의 4대에 書院과 書屋이 모두 260여곳(『徽州書院沿革述略』)에 달하였다. 朱熹가 휘주인의 독서·교화와 휘주 교육사업 발전에 끼친 영향력은 매우 컸다. “十戶之村, 不廢誦讀”은 휘주인의 독서 풍조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 결과 清代 順治年間부터 道光년간에 이르는 180년간 휘주부 출신 進士가 519명(타향에 기적한 자 포함)에 달하고 있다. 歙縣 출신자로 한정하면 進士가 296명인데 그 중에는 狀元 5명, 榜眼 2명, 探花 8명, 傳臚 5명, 會元 3명, 解元 13명이고, 內閣學士에 임용된 자가 15명, 大學士 4명, 侍郎 21명, 尙書 7명, 都察院御史 7명이고, 宋嘉定10년부터 淸光緒6년까지 휴녕 출신 狀元이 19명에 달해 이 부분 중국 수위를 차지했다.³⁰⁾

이학이 성행했던 程朱闢里에서 신안의학은 정주이학의 영향을 받아 의가의 사상이 형성되고, 의학 이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朱熹는 신안 지역에서 지위가 매우 높아 휘주학당에서 제사지내는 것도 孔子가 아닌 朱熹였다고 한다.³¹⁾

2) 新安의 儒醫

儒商³²⁾이 명 중기 이래 휘주 지역 상인의 중요한 특징인 것과 마찬가지로 儒醫³³⁾ 또한 당시 의인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유의라는 명칭이 중국 문헌에 보이기 시작한 것은 송대 洪邁의 『夷堅志』이며, 그 후 많은 저작에서 논의되고 있다.³⁴⁾ 明代 儒醫는 이전 시기에 비해 급속히 증가하여 청대 陳夢雷의 『醫部全錄』, 『醫術名流列傳』에서 거론되는 명대의 의가만 해도 900명 정도인데, 대부분이 유의로 송원 시기에 비해 4배 증가하였다.³⁵⁾ 儒醫는 대부분 유학과 도학 등에 능통한 사람들로 문자에 대한 이해가 높고 사물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도 강하기 때문에 치료 경험과 전해 내려오는 비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하고자 하였고, 자신의 생각을 저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므로 의서 편찬의 많은 부분이 이들에 의해 이루어졌다.³⁶⁾

유학이 발달하고 교육을 중시했던 휘주에서는 중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유의를 배출하였다. 신안 의학은 ‘醫出于儒’, ‘大醫必本于大儒’, ‘醫雖藝術, 必先通儒而後學’, ‘醫而儒, 明醫也’, 라 하였으니 의학 인물 가운데 특히 유의의 비중이 높았다. 이들 유의를 다시 구분하면 ‘先儒後醫’ 이거나 ‘棄儒從醫’, ‘儒而兼醫’, ‘知醫自用’, ‘研醫著述’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徽州 출신 儒醫 중에는 秀才(예를 들면 汪機, 江權, 余午亭, 葉紫

帆, 汪昂 등)도 있고, 舉人(예를 들면 徐文龍, 胡澍, 許佐庭, 余正燮, 巴堂誼 등), 進士(예를 들면 南宋의 王炎, 明의 畢懋康, 程玠, 淸代의 戴震, 方自然, 汪宗沂 등)도 있었다. 직무상 지방의 각급 醫學官員(醫學正科·訓科·提舉·教授 등)이 27명 있었고, 太醫院(局)에서 직무(院判, 醫學博士, 御醫, 吏目, 翰林醫官 등)를 수행했던 사람이 33명 있었다. 신안은 儒而醫者가 70%에 달해 중국전통의학 분야에서 가장 특색 있는 儒醫群體를 형성하였다.³⁷⁾ 그 때문에 역대 명인들이 신안의적에 序나 跋을 쓸 때 ‘以儒通醫’, ‘新安儒醫也’, ‘通儒名醫’, ‘名儒而兼岐黃’, 등의 표현으로 신안 의학가를 평가하였다.

이러한 新安 儒醫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역시 程朱理學의 주요 이론인 ‘仁’, ‘格物致知’, ‘太極’, ‘性命之說’ 등이라 할 수 있다. 二程은 ‘學者須識仁’, ‘五常之德統于仁’, ‘仁義之理就是天理’라 생각하였는데 신안의학은 이러한 사상을 계승하고 실천하였다.³⁸⁾ 新安의 유

30) 黃熙, 黃孝周, 「程朱理學與新安醫學之探討」, 『安徽中醫學院學報』 23-4, 2004, p.10.

31) 黃熙, 黃孝周, 「程朱理學與新安醫學之探討」, 『安徽中醫學院學報』 23-4, 2004, p.9.

32) 李艷, 李梢, 「徽商與新安醫學的文化成因初探」, 『中醫教育』 15, 1996, p.43에서는 儒商文化가 신안의학 형성의 조건이 되었다고 밝히면서, 휘주 지역의 중요한 문화 특징으로 ‘右儒而左賈’를 들고 있다.

33) 儒醫의 정의에 대해 김남일은 “유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의학의 이치를 연구하는 사람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당시 지식인들 중에서 의학의 이치에 통달하여 의학 연구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한다. 이 중에는 의학적 지식이나 의료기술에도 정통한 학자가 있었는가 하면 학자라고는 하나 실제로는 의학을 전업으로 삼는 사람도 있었고, 학자였지만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의학을 연구한 사람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다”고 하였다(김남일, 『한국의학의 역사와 산청지역의 의학전통』, 『제11회 한국의사학 학술대회 자료집-지역사회 의학과 한의학 역사발간』, 2008, p.18). 林殷은 “유이는 유가문화로 대표되는 전통문화와 한의학이 결합된 담체이다. 그들은 의사라는 특수한 집단에 속하면서 선비라는 계층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유학과 의학의 두 가지 특성이 융합되어 있다. 이 유의는 특히 ‘醫儒同道’의 문화 색채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다(林殷 지음, 문재곤 옮김, 『한의학과의 융합문화의 만남』, 예문서원, 1999, p.239).

34) 유의에 관한 설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明代 李時珍의 『醫學入門』에 “秦漢 이후에 經史에 통달하고 몸을 닦고 행동을 조심하여 유명한 유자로서 의학에도 통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그들을 儒醫라고 불렀다. 둘째 淸代 徐松의 『宋會要輯考』, 『崇儒』에 “유학을 익히는 사람으로 의학 경전에 통달하고 진료에 밝으며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을 유의라고 한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셋째, 현대의 『辭源』에서 유의를 “본업은 유학자이면서 의학을 익힌 사람을 유의라 한다”고 하였다(林殷 지음, 문재곤 옮김, 『한의학과의 융합문화의 만남』, 예문서원, 1999, p.239).

35) 林殷 지음, 문재곤 옮김, 『한의학과의 융합문화의 만남』, 예문서원, 1999, p.300.

36) 김기욱 외, 『강좌 중국의학사』, 대성의학사, 2006, p.158.

37) 黃熙, 黃孝周, 「程朱理學與新安醫學之探討」, 『安徽中醫學院學報』 23-4, 2004, p.10.

명한 儒醫 汪機는 ‘醫는 곧 仁術이다.’ 고 하였으며, 서춘보는 용경2년 최초의 민간의학단체인 ‘一體堂宅仁醫會’를 조직하였다. 이 단체에는 북경에서 의료 활동을 하고 있던 46명이 참가하고 있는데, 그 중 신안 출신 의가가 21명(太醫 3명 포함)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조직의 명칭에 ‘宅仁’이 포함된 것에 대해 “今宅仁以爲會, 取善以輔仁”라 하여 조직 설립의 의의를 밝혔다. 결국 신안의 유의들은 “夫道, 仁也, 夫醫, 仁術也”라 인식하였다.

명·청시대 회주에서 유의가 많이 배출되었던 것은 仕途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의를 택한 경우도 있지만, 부득이하게 의인의 길로 나아간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명대 사대부의 家規 중에는 ‘남자는 治生을 급선무로 삼아야 함’(男子要以治生爲急)³⁹⁾을 강조하면서 ‘棄儒就賈’(유를 버리고 상업으로 나아가는)⁴⁰⁾ 혹은 湖廣 麻城의 鄒順菴의 예에서처럼 ‘棄儒爲醫’(유를 버리고 의사가 되는)⁴¹⁾ 현상도 출현하고 있다.

또한 과거를 준비하는 중에 가정의 변화와 자신의 건강 등의 원인으로 醫에 뜻을 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江 璣(1503-1565)⁴²⁾은 14세에 急病으로 어머니를 잃고 이후 자신도 嘔血症을 앓아 수 십 명의 의사에게 치료를 부탁하였으나 좋은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이에 스스로 의서를 공부하여 치유한 이후 사도의 길을 포기하고 醫의 길로 나아갔다.

그밖에 嘉靖年間の 陳嘉謨는 어려서 유학을 공부하여 시문에 통달하였으나 체력이 약하고 병이 많아 의학에 전념하면서 명의로 이름을 날렸다. 明末 清初의 鄭雲鵬은 江夏에 寄籍하였는데 어려서는 유학을 학습하였지만 학질로 어머니를 잃고 처와 자녀 또한 계속 병으로 죽자 집에 소장하고 있던 軒岐 이하 의서 1979권을 주야로 송독하여 마침내 의술에 통달하여 일대 명이가 되어 저명한『傷寒問答』등 醫書 7종을 남겼다. 이처럼 본인이나 가족의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인의 길로 바꾼 유학자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천하의 神手’로 평가받는 程敬道는 의술에 조예가 깊었는데, 唐暉는 程氏重刊『外臺秘要』序에서 그를 ‘儒通醫’로 칭하였다. 그는 또 만약 ‘醫’를 알고 싶다면 반드시 학문을 좋아해야 한다고 하면서 “독서하는 자로서 醫가 될 수 없는 자가 있을 수 있지만 독서하지 않고 醫가 될 수는 없다.”고 말하였다.⁴³⁾ 명대 휴녕 출신의 徐文龍은 杭州府 同知를 제수받았는데 의술에 정통하여 약국을 설립하여 빈민 구제에 노력하였다. 歙縣 畢懋康은 만력년간 진

사로 후에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와『醫匯』등 다종의 의서를 저술하였다. ‘以儒入醫’, 혹은 ‘亦儒亦醫’, ‘亦仕亦醫’ 등 명대 신안 儒醫의 가장 큰 특징은 그들 모두가 유가의 도덕규범을 중시하였다는 점이다.

3. 徽商의 經濟活動과 醫學의 發展

1) 徽州人の 對外進出과 經商

신안의학의 변영은 휘상의 경제상의 원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⁴⁴⁾ 휘상의 형성 시점에 대해서는 ‘東晉說’, ‘唐宋說’, ‘明中期說’ 등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明中期說’에 많은 논자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⁴⁵⁾ 특히 명대 가정년간부터 청대 건륭년간까지 약 300년간 회주상인의 황금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⁴⁶⁾ 이와 관련하여 謝肇淪는 “富實의 우두머리를 일컫는 것은 江南에서는 新安을 추천하고, 江北에서는 山右(山西)를 추천할 수 있다. 新安의 큰 상인은 어업과 염업을 주로 하며, 돈꾸러미를 저장함이 백만에 이르는 자가 있으니, 기타 이삼십만은 중간상인일 뿐이다.”⁴⁷⁾고 하였다.

당시는 상업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 활동범위, 경영 자본 등이 모두 크게 증대되는 시기였다.⁴⁸⁾ 이와 관련하여『徽州府志』에서는 ‘農十之三, 賈七焉’, ‘以資殖爲恒產’이라 했다.⁴⁹⁾ 휘상 중에는 行商과 坐賈, 牙行을 겸하기도 했고, 한 사람이 여러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었다.⁵⁰⁾ 외지로 나가 활동하여 크게 재부를 획득한 사람이 다

38) 黃熙, 黃孝周, 『程朱理學與新安醫學之探討』, 『安徽中醫學院學報』 23-4, 2004, p.10.

39) 余英時 著, 鄭仁在 譯, 『中國近世宗教倫理와 商人精神』, 대한고교서주식회사, 1993, p.166.

40) 周志斌, 『論晚明商潮中的儒士』, 『長白論叢』 1994-2(→復印報刊『經濟史』, 1994-3), p.70.

41) 『麻城縣志』卷27, 『人物志·藝術』: “順菴橋泉之六代孫, 長業儒遇異人傳授方脈, 棄儒爲醫, 精於切脈洞悉表裏之微, 卒爲名醫”.

42) 洪元植 外 編著, 『韓中醫學史概說』, 周珉, 2007, pp.350-351, 참조.

43) 張海鵬, 王廷元 主編, 『徽商研究』, 安徽人民出版社, 1995, p.531.

44) 王樂陶 主編, 『新安醫籍考』,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99, “吳序”, p.3; 張海鵬, 王廷元 主編, 『徽商研究』, 安徽人民出版社, 1995, p.528; 李艷, 李梢, 「徽商與新安醫學的文化成因初探」, 『中醫教育』 15, 1996, p.43.

45) 조영현, 『대운하와 휘주상인-명말·청초 화·양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6, p.35, 주3), 참조.

46) 項長生, 項鴻, 「徽州的文化經濟與“新安醫學”」, 『中華醫史雜誌』 28-4, 1998, p.236.

47) 謝肇淪, 『五雜俎』卷 64, 『地部 二』

48) 項長生, 項鴻, 「徽州的文化經濟與“新安醫學”」, 『中華醫史雜誌』 28-4, 1998, p.236.

49) 『弘治徽州府志』, 「食貨」.

수 출현하였으니 예를 들면 汪箕는 북경에서 전당포 수십 곳을 경영하기도 했다.

이처럼 다수의 휘상이 집단적으로 대외진출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으로는 휘주 지역의 열악한 자연환경과 관계가 있다. 즉 대부분이 산지로 둘러싸인 휘주 지역의 생산력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명 중기 이후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세 부담의 가중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거 외지로 진출하였다는 것이다.

명·청 시대 휘상의 대외 진출이 두드러져 ‘無徽不成鎮’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었는데, 특히 양자강 중·하류 지역의 상업 무역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⁵¹⁾ 이처럼 명·청시대를 대표하는 휘주상인의 성장 요인에 대해서는 크게 다음 세가지를 들고 있다.⁵²⁾ 첫째, 유교적 문화지식의 우수성으로 ‘賈而好儒’의 특성을 지닌 휘상은 문화지식을 바탕으로 염업을 비롯한 각종 업종에서 다른 상방을 압도할 수 있었다. 둘째, 관부와의 관계로 휘상은 다른 상방에 비해 관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특히 관전매였던 염업에서 순조롭게 성장할 수 있었다. 셋째, 휘상은 종족관념이 강하여 종족조직을 이용한 상호부조의 조직망으로 각 지역에서 상권을 쉽게 장악할 수 있었다.

徽商의 대외진출이 늘어나면서 당시의 명 의들도 상인들과 함께 외지로 진출하였는데, 특히 자본력이 충분한 약상은 상업과 의업을 병행하기도 하였다.⁵³⁾ 신안의가 중에서는 程氏, 吳氏, 黃氏, 汪氏, 鄭氏 등이 저명한데 이들은 또한 휘상을 대표하는 종족 집단이라는 점에서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⁵⁴⁾

2) 商과 醫의 結合

徽州 출신 의사들은 외지로 진출하여 의료업에 종사하면서 많은 名醫를 배출하고 학문적인 발전을 이루기도 했다.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명·청 양대에 걸쳐 名醫 693명을 배출하고 醫著 619종을 출간하였다고 한다.⁵⁵⁾ 그들이 진출한 지역은 北京, 南京, 揚州, 杭州 등 당시 정치·경제의 중심지이자 대도시로 徽州商人의 활동 지역과도 일맥상통한다.⁵⁶⁾ 이처럼 상인과 함께 의사가 외지로 진출했던 것은 상인들의 건강상의 수요가 그만큼 많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⁵⁷⁾

徽州商人이 일정한 경제 세력을 형성한 이후 자연히 건강에 대해 새로운 지식과 요구를 갖게 되는데 이것은 신안 의학이 고도로 번영하게 된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徽州 본토는 물론이거니와 휘상이 흘러들어갔던 수많

은 지방에서 모두 볼 수 있다. 중국 의학사상 보기 드문 현상인 명·청 양 대 신안 명의가 외지에 나간 사람 수가 매우 많고 그 지역 또한 대단히 넓다는 것이다.

명 중기 이후 급속히 성장한 徽州商人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본을 축적하여⁵⁸⁾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활동하였고, 경영 항목 또한 매우 다양했다.⁵⁹⁾ 그 중에는 외지에서 약재업에 종사했던 상인도 적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二刻拍案驚奇』卷37에는 遼陽에서 활약했던 徽州상인 程宗와 程宰 형제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⁶⁰⁾ 그에 의하면 이들 형제는 正德元年에 수 천 냥의 자본을 가지고 遼陽 지방에 와서 人蔘·松子·貂皮·東珠 등을 판매했다가 운이 나빠 실패했다. 그런데 徽州에서는 상업을 하러 외지로 나갔다가 성공하여 거액의 이익을 남기고 돌아올 경우 밖으로는 종족·친구로부터 안으로는 가족에 이르기까지 존경을 받지만 실패한 뒤에 고향으로 돌아오면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만다. 따라서 정씨 형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遼陽에서 점포를 내어 운영하고 있던 또 다른 徽州商人의 점포에 점원으로 들어갔다. 그로부터 약 10년의 세월이 지난 정덕14년

50) 項長生, 項鴻, 「徽州的文化經濟與“新安醫學”」, 『中華醫史雜誌』 28-4, 1998, p.236.
 51) 牛淑平, 汪滬雙, 「中醫學史上的新安醫學流波」, 『黃山高等專科學校學報』 2-4, 2000, p.58.
 52) 휘상의 성장요인 세 가지와 그에 관한 선행연구에 대해서는 조영현, 『대운하와 휘주상인-명말·청초 화·양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6, p.2, 참조.
 53) 項長生, 項鴻, 「徽州的文化經濟與“新安醫學”」, 『中華醫史雜誌』 28-4, 1998, p.236.
 54) 牛淑平, 汪滬雙, 「中醫學史上的新安醫學流波」, 『黃山高等專科學校學報』 2-4, 2000, p.58.
 55) 그 중 중요한 인물과 저서를 소개하면 張杲의 『醫說』은 현존하는 중국의 가장 오래된 醫史傳記이고, 江耀의 『名醫類案』은 역대 醫案을 총결집한 저술이다. 吳昆의 『醫方考』는 醫方에 주석을 단 저작이다. 孫一奎의 三焦·火·氣 및 命門의 학설과 吳濟의 理脾陰學說은 의학 이론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汪昂의 『本草備要』, 『醫方集解』, 『湯頭歌訣』 등과 程國彭의 『醫學心悟』, 吳謙 주편의 『醫宗金鑑』 및 程杏軒 所輯의 『醫述』 등 저작은 전국으로 보급되어 중국 의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이들 저작 중 일부는 동남아 국가에서 간행되기도 하였다(張海鵬, 王廷元 主編, 『徽商研究』, 安徽人民出版社, 1995, p.525).
 56) 명·청시대 徽州상인의 활동 영역에 대해서는 藤井宏, 「新安商人の研究」(一·二·三), 『東洋學報』 36-1:2-3, 1953 ; 조영현, 『대운하와 휘주상인-명말·청초 화·양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6 등 참조.
 57) 張海鵬, 王廷元 主編, 『徽商研究』, 安徽人民出版社, 1995, p.527.
 58) 그들이 축적한 상업자본의 유형에는 ① 공동자본, ② 위탁자본, ③ 혼인자본, ④ 원조자본, ⑤ 유산자본, ⑥ 관료자본, ⑦ 노동자본 등이 있다(藤井宏, 1953(三), pp.66-74).
 59) 藤井宏, 「新安商人の研究」(二)(『東洋學報』 36-2, 1953), pp.32-60 참조.
 60) 이하 程宗와 程宰 형제의 이야기는 藤井宏, 「新安商人の研究」(二)(『東洋學報』 36-2, p.47에서 재인용함.

여름 동생 程宰는 꿈 속에서 商賈의 방법을 배운다. 그리고 그 해 여름 약재를 팔러 요동에 온 상인이 판매하고 남은 黃栢·大黃의 처치에 곤란을 겪고 있을 때 程宰에게 살 것을 주문하고 그는 점포에서 노동으로 번 傭工銀 약 10냥을 투자하여 그것을 모두 매점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동에 역병이 돌아 그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고 한다. 이상 程案와 程宰의 예를 통해 몇 가지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는 徽州상인이 동북 지역까지 진출하여 약재업에 종사했다는 점이다. 둘째 외지로 진출한 徽州상인은 강한 동향의식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程案 형제가 실패를 경험한 뒤 같은 지역 출신 상인이 운영하는 점포에 점원으로 취직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역병이 한 번 유행하면 이를 계기로 큰 이익을 남긴 약재업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 명 중기에는 상업에 종사하다가 의사가 된 사람도 있었으니 ‘棄賈而醫’(상업을 버리고 醫가 되는)의 경우이다.⁶¹⁾ 예를 들면 『赤水玄珠』, 『醫旨緒餘』, 『醫案』 등을 저술하여 의학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던 孫一奎(1522-1619)가 이에 해당한다. 그는 절강 括蒼 일대에서 상업을 하다가 士人 으로부터 비방을 전수받아 사용해보고 효험이 있자 의학으로 진로를 바꾸었다고 한다. ‘棄賈而醫’의 경향은 청대에도 계속되어 歙縣 喉科 鄭于豐, 于蕃 형제는 아버지를 따라 객상으로 江西 南豐에 갔다가 아버지가 병을 얻자 喉科 전문의 黃明生에게 청하여 진단을 받고 치유한 것을 계기로 의사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한다. 이들 형제는 3년 간 교육을 받은 후 귀향하여 喉症 환자를 치료하였다. 康熙60年 정씨 형제는 분가하여 于豐의 宅名을 ‘南園’이라 하니 사람들이 ‘南園喉科’라 불렀고, 于蕃 宅名은 ‘西園’이라 하니 세인이 ‘西園喉科’라 불렀다고 한다.⁶²⁾

맺음말

본고는 명·청 시대를 대표하는 지역의학인 신안의학이 성장·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 지역의 문화 구조를 통해 살펴보았다. 지역적으로 휘주는 고대 ‘越’ 문화지대에 속하지만 증원에서 전란이 있을 때 남하한 이주민들이 정착하여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였다.

휘주는 송대 성리학의 대가인 二程과 朱熹가 이 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程朱闕里’로 칭해졌고, 그 때문에 강한 유교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휘주 문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교육의 중시, 유학의 흥성은 이 지역에서 많은 관료를 배출하고 의학이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으며, ‘先儒後醫’ 이거나 ‘棄儒從醫’, ‘儒而兼醫’ 등 다양한 형태의 유의를 배출시켰다.

이러한 유교문화의 전통과 더불어 휘주 지역에서 의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휘상이라는 당대 최고의 상인 집단의 활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휘주 지역의 열악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대외진출을 시도했던 휘상이 전국 각지에 분포해 있었으므로 의학 방면의 지식을 포함하여 각지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유리하였고, 상인 가운데 일부는 ‘상을 버리고 의로 나아가는’(棄賈而醫) 경우도 있었다.

儒商文化는 휘주지역의 독특한 문화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商과 儒가 결합하는 방식의 유행은 많은 학자들이 실용적인 경제치용의 학문에 종사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면서 명 중기 이후에는 유학자 중에서 醫學에 투신하는 경향이 늘어났고, 醫業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점차 높아지면서 儒와 醫, 商과 醫가 결합하는 풍토가 조성되었다.

결국 휘주라는 특정 지역의 의학 발전에는 ‘東南鄒魯’로 불릴 정도로 유교문화의 전통을 지니고 있으면서 상업 활동을 통한 경제력의 뒷받침을 받은 두 가지 조건이 맞물리면서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휘상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명 중기부터 청말까지 지역의학의 발전도 정점에 달했다는 사실은 양자 사이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반증한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彭化銀, 「醫家群體-“新安醫學”淺探」,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3, 1996
- 王樂陶 主編, 『新安醫籍考』,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99
- 李艷, 李梢, 「徽商與新安醫學的文化成因初探」, 『中醫教育』 15, 1996
- 項長生, 項鴻, 「徽州的文化經濟與“新安醫學”」, 『中華醫史雜誌』 28-4, 1998
- 黃熙, 黃孝周, 「程朱理學與新安醫學之探討」, 『安徽中醫學院學報』 23-4, 2004
- 王旭光, 「傳入朝鮮與韓國的新安醫籍」, 『安徽中醫學院學報』 23-6, 2004

61) 張海鵬, 王廷元 主編, 『徽商研究』, 安徽人民出版社, 1995, p.530.

62) 『(民國)歙縣志』卷 10, '方技'.

- 章麗華, 王旭光, 「新安醫籍在日本的流傳」, 『醫古文知識』 2000-2
- 張玉才, 「明清時期徽人在揚州的醫事活動及影響」,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6-9, 2000
- 童光東, 劉惠玲, 「明清時期新安藥店及其醫藥學作用」, 『中華醫史雜誌』 25-1, 1995
- 童光東, 「論新安醫家家族鏈是新安醫學發展的重要形式」, 『安徽中醫學院學報』 9-2, 1990
- 許霞, 張玉才, 「試述徽州宗族在新安醫學普及與傳播中的作用」, 『中醫藥導報』 13-7, 2007
- 胡濱, 「中醫學術流派散論」, 『中醫文獻雜誌』 2000-4
- 汪滬雙, 牛淑平, 「試述新安醫學的‘學派’與‘流派’」, 『中醫文獻雜誌』 2000年 4期
- 牛淑平, 汪滬雙, 「中醫學史上的‘新安醫學’流波」, 『黃山高等專科學校學報』 2-4, 2000
- 項長生, 汪幼一, 「固本培元派的形成和發展」, 『中華醫史雜誌』 31-4, 2001
- 顧植山, 「汪機學術思想及臨床思維探析」, 『中醫文獻雜誌』 2001年 2期
- 徐偉, 「新安醫家汪機學術思想淺析-讀『石山醫案』有感」, 『江蘇中醫藥』 40-3, 2008
- 章麗華, 「汪機著述活動新考」, 『時珍國醫國藥』 12-9, 2001
- 王旭光, 章麗華, 「汪機著述考」, 『中華醫史雜誌』 29-4, 1999
- 傅佑寶, 張秀梅, 「汪機運用人參·黃芪治療腹痛的學術初探」, 『河北中醫』 22-8, 2000
- 傅佑寶, 邢艷艷, 「汪機扶危救急的學術特色」, 『中國中醫急症』 9-3, 2000
- 徐燾, 管延壽, 「汪機熱病治驗賞析」, 『安徽中醫臨床雜誌』 6-4, 1994
- 張玉才, 趙軍, 「汪機『傷寒選錄』初探」, 『中醫文獻雜誌』 2004年 2期
- 汪滬雙, 張玉才, 「『傷寒選錄』淺析」, 『安徽中醫學院學報』 23-4, 2004
- 萬四妹, 許霞, 「汪機『傷寒選錄』對溫病學的貢獻」, 『安徽中醫學院學報』 23-3, 2004
- 閻廷祿, 「試論汪機的鍼灸學術特點」, 『中國鍼灸』, 1994年增刊
- 黃學勇, 高忻洙, 「汪機鍼灸學思想評述」, 『中醫文獻雜誌』 1996年 2期
- 李萬瑤, 林勳, 「論汪機『鍼灸問對』的特點」, 『中醫藥研究』 1995-1
- 張建華, 「汪機『外科理例』傷科學術思想評析」, 『安徽中醫學院學報』 13-4, 1994
- 강현호·윤창열, 「孫一奎의 生涯와 學術思想에 관한 研究」,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7-2, 1999
- 김용주·백유상·정장현, 「孫一奎의 火熱病機學說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2, 2007
- 孟繁潔, 「孫一奎之生命本源說」, 『天津中醫藥』 21-4, 2004
- 余曉琪, 黃曙光, 「新安醫家對“三焦”的爭鳴」, 『安徽中醫學院學報』 17-5, 1998
- 何任, 「『赤水玄珠』述評」, 『浙江中醫學院學報』 26-2, 2002
- 周德生, 「孫一奎命門學說新探」, 『湖南中醫學院學報』 15-4, 1995
- 王曉鶴, 「孫一奎的命門三焦說及其臨床意義」, 『山西中醫學院學報』 3-2, 2002
- 萬四妹, 張玉才, 「淺析『孫文垣醫案』“有發明”案例」, 『中醫文獻雜誌』 2008年 3期
- 鄒杰, 趙會茹, 「孫一奎臨證治腎用藥分析」, 『中醫研究』 2005-4
- 鄒杰, 趙會茹, 「孫一奎『赤水玄珠』補腎觀淺析」, 『河南中醫學院學報』 21, 2006
- 王鍵, 牛淑平, 「新安醫學的非物質文化遺產特徵」, 『中醫藥文化』 2007-5
- 張玉才, 徐謙德, 「新安醫學的儒學傳統」, 『上海中醫藥雜誌』 1998-7
- 方利山, 「新安儒醫濟世救民舉隅」,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10-3, 2004
- 박원호, 「徽州文書와 徽州學研究」, 『사총』 54, 2001
- 『弘治徽州府志』
- 『祁門善和程氏譜』
- 雍正重刻『程朱關里志』
- 김남일, 「한국의학의 역사와 산청지역의 의학전통」, 『제11회 한국사학 학술회 자료집-지역사회 의료와 한의학 역사발전』, 2008
- 林殷 지음, 문재곤 옮김, 『한의학과 유교문화의 만남』, 예문서원, 1999
- 김기욱 외, 『강좌 중국의학사』, 대성의학사, 2006
- 余英時 著, 鄭仁在 譯, 『中國近世宗教倫理와 商人精神』,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3
- 周志斌, 「論晚明商潮中的儒士」, 『長白論叢』 1994-2(→復印報刊『經濟史』, 1994-3)
- 『麻城縣志』
- 洪元植 外 編著, 『韓中醫學史概說』, 周珉, 2007
- 張海鵬, 王廷元 主編, 『徽商研究』, 安徽人民出版社, 1995
- 조영현, 『대운하와 회주상인-명말·청초 회·양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6
- 謝肇淛, 『五雜俎』
- 藤井宏, 「新安商人の研究(一·二·三)」, 『東洋學報』 36-1·2·3, 1953
- 『(民國)歙縣志』